

SK, '와울 아이스크림' 출시

팬 위한 먹거리 선보여...구단 마스코트 활용 두 번째 메뉴

2018년 06월 04일 (월) 오전 10시 57분 34초

류한준기자 hantaeng@joynews24.com

[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] SK 와이번스가 홈 구장인 인천 SK행복드림구장을 방문하는 팬들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선보였다.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구단 마스코트 '와울'을 활용한 두 번째 먹거리다.

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'와울 아이스크림'이다. 귀여운 외형으로 어린이 팬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와울을 활용한 먹거리는 앞서 있었다. 지난해(2017년) 출시된 '와울빵'이다.

와울 아이스크림은 와울빵에 이은 두 번째 '와울 푸드'다. 와울 모양 빵 안에 블루베리소스·커스타드 크림·단팥 등을 더할 수 있고 그 위에 밀크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얹었다.



◇ [사진=SK 와이번스]

판매 가격은 3천5백원이다. 지난 1일 KT 위즈와 홈 경기부터 홈 구장 1층 1루쪽 복도 가운데에 자리한 와이번스 푸드 매대에서 판매를 시작했다.

SK 구단 F&B 담당 양용석 매니저는 "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야구장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"며 "첫 번째 와울 푸드인 와울빵도 인기가 좋았다. 두 번째 와울 푸드인 와울 아이스크림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SK 구단 측은 "앞으로도 홈 구장만의 특화된 메뉴를 개발해 방문하는 고객과 야구팬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줄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hantaeng@joynews24.com

[류한준기자](#) 조이뉴스24

IT는 아이뉴스24,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